“훈민정음 보급 불경 언해가 큰 역할”

조계종 교육원 · 한국불교학회, 10월 5일 기획 세미나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10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훈민정음 반포 570주년을 맞아 ‘훈민정음과 불교’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스님들과 국문학자들이 한글 창제와 보급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정천 스님은 조선 왕실 불사에서 훈민정음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살폈다. 스님은 1446년 세종이 훈민정음 반포 이후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한 〈용비어천가〉와 한자어를 우리 글로 바꾸는 기준인 〈동국정음〉을 만들었고, 이외에는 모두 불교와 관련된 글을 우리말로 번역했음을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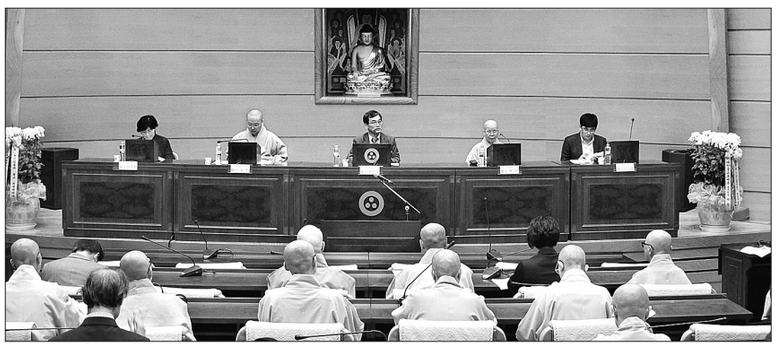
이에 대해 정천 스님은 “세종대 언해된 불전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 있다”며 “세종은 백성들에게 친숙한 불교로 훈민정음을 널리 유포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후 가장 많은 불경을 언해한 군주는 세조다. 그는 1461년(세조 7년)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적지 않은 불교 서적을 간행했다. 불경 언해에도 조예가 있던 세조는 스스로 12건의 언해본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 세조대 간경도감에서 발행된 불경 언해는 총 15건이다.

월인천강지곡 등 언해본 발행과
왕실불사 내 훈민정음 활용 살펴
창제 주역 신미 스님 조명 ‘눈길’

성종과 연산군대에 이르러서는 왕후나 대비가 주로 발원해 언해본 발행이 이뤄졌고, 중종부터는 훈민정음과 관련된 왕실불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 이 시기부터는 각 사찰별로 불경 언해가 이뤄졌다.

정천 스님은 “세조 당시 언해된 경전은 승가에서 유행하거나 자신이 좋아했던 경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승려의 교육을 위한 의도도 가미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훈민정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불교로 전환시켜 불교의 사상적 발전을 가져다줬다”면서 “백성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불교로 훈민정음을 보급시키고, 보급된 훈민정음은 다시금 불교를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과 한국불교학회는 10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훈민정음 반포 570주년을 맞아 ‘훈민정음과 불교’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훈민정음 창제 주역으로 알려진 혜각존자 신미 스님을 조명한 박해진 씨의 논문도 눈길을 끌었다. 박 씨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을 저술하기도 했다.

박 씨는 “〈세종실록〉의 편수관이었던 정인지는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록 앞뒤를 잘라내고, 임의 편집해 왜곡했다”며 이어 “〈월인석보〉에 협주된 신미, 수미, 설준, 홍준, 효운, 지해, 해초를 비롯해 가정대부 김수온의 역할도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슬옹(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천개의 강에 떠오른 부처님 말씀과 세종의 꿈’, 영석 스님(동국대)의 ‘간경도감의 선서언해본 연구’, 자현 스님(중앙승가대)의 ‘세조의 상원사 중창과 〈상원사중창권선문〉에 대한 검토’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KABC, 사용자 확대… 신집성문헌 독창적”

동국대 불교학술원, 9월 30일 ‘ABC사업 실효’ 세미나

통합대장경·불교전서·신집성문헌
기록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방문자 87% ‘신집성문헌’ 이용
“ABC 사업, 2단계로 심화될 것”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이트.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이 추진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이하 ABC) 구축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9월 30일 교내 학명세미나실에서 ‘ABC 구축사업의 실효와 지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교학술원이 집성한 자료의 서지 사항, 고해상도 사진 등을 제공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시스템(이하 KABC)’에 대한 실효성과 콘텐츠 활용 지향점 등이 분석됐다.

이날 정승석 불교학술원장은 ‘ABC 구축사업의 가치와 성과’ 기조 발제에서 불교학술원이 제공하는 아카이브 시스템 KABC의 2014년 개설 이후부터 사용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 중 87%가 새롭게 집성한 ‘신문헌집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사찰 역사, 의례, 사상문화 등의 범주에 속하는 기록문화를 ABC사업단에서 집성한 것이 ‘신집성문헌’이며, 이는 ABC사업의 독창성을 대변한다”면서 “KABC의 이용자 대다수가 신집성문헌을 이용한다는 통계는 동국대 ABC사업의 진가를 충분히 공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올해로 동국대 ABC사업의 1단계 5년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규모를 확장해 더욱 심화하는 2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정 원장은 “ABC사업은 그간의 노력과 경험으로 2단계에 안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1단계 사업을 더욱 심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향후 3단계에서는 그간 병행해온 성과의 실용화를 최대한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천학(동국대)의 ‘원효 저술 일문(逸文)의 실태와 의의’, 원과 스님(동국대)의 ‘〈승만경〉의 일승장에 대한 원효의 해설’, 정재영 · 안대현 · 하정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조선 초기 〈능엄경〉 석독구결(釋讀口訣) 자료의 발견과 그 의의’, 이대형(동국대)의 ‘조선시대 승려 문집의 성격과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편찬의 가치’ 등 10편의 주제 논문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태고보우법통설’은 만들어진 역사”

최병헌 교수, 30일 보조사상硏 세미나서 파격 주장

17세기 청허 휴정 문손들이
불교계 주도하며 법통 창작
태고보우법통, 현대도 영향

효봉, 태고 법맥 계승했지만
지눌의 개혁정신도 받아들여
“태고보우법통설은 폐기하고
지눌 · 원효의 확대 史觀 필요”

한국불교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태고보우법통설과 문중 개념은 만들어진 역사이며, 이를 뛰어넘은 통합적인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보조사상연구원이 9월 30일 서울 법련사에서 개최한 ‘효봉 스님 열반 50주기 추모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수선사 보조국사와 송광사 효봉 스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최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효봉 스님의 전법계보를 분석하고 태고보우법통설에 대해 비판했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태고보우법통설이 본래 계승돼 내려오던 것이 아닌 역사적으로 창작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16~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청허휴정(淸虛休靜)과 동문인 부휴선수(浮休善修) 계통이 크게 부상했으며 이들 문손들이 불교계를 주도하게 됐다는 것이다. 17세기 이후에는 주류층이 된 청허 계통과 부휴계통 간의 경쟁의식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청허 계통의 문손들이 주류로 자리잡게 된다. 청허 계통 중에서도 핵심은 편양언기(鞭羊彦機)의 문손들이었고, 이들이 태고법통설의 창작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송광사만은 부휴 선사가 1609년 송광사의 요청에 부응해 벽암각성 등 400여 명을 거느리고 중수를 담당했던 것이 계기가 돼 대대로 부휴계 문손들이 주석했다.

최 교수는 “법통이나 전법 계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이심전심으로 전수되는 사자상승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중국 선종에서 강조된 것”이라며 “청허-편양의 문손들이 근현대 각 종파의 부침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인 종정의 배출을 독점하고, 태고보우법통설이 부동의 정통설로 받아들여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통설은 문중의식으로 강화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2년 통합종단의 종정으로 추대된 효봉 스님도 청허 계통의 문손으로 태고법통설의 계승을 자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 최 교수는 효봉 스님의 역사인식에 주목했다. 효봉 스님은 태고보우의 법통을 계승하면서도 보조지눌의 가풍과 결사 정신을 새롭게 인식해 계승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역사 인식은 현대 불교의 역사적 과제에 부응하는 효봉 스님의 뚜렷한 역사의식의 소산으로써 송광사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방향을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태고보우법통설’은 폐기돼야할 ‘전근대적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 불교사에서도 신라 말 고려초 전법계보가 조작되고 있었음을 회양산문의 법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서 “법계정심 이전의 법계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허구임이 밝혀졌다. 이제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 태고법통설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불교를 개혁해 중흥하기 위해서는 태고법통설을 폐기하고, 지눌의 선교통합사상과 정혜결사 정신, 원효의 통합불교사상과 대중화 운동의 정신을 재인식하고 계승하려는 확대된 불교사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건기 전북대 명예교수가 ‘목우자 지눌의 생애와 사상-사상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에 대해,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다시 생각해보는 돈오점수론’에 대해,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는 ‘효봉 스님 그리고 지눌을 배움(學訥)’을, 법산 스님은 ‘효봉의 정화운동과 한국불교의 현실’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분노, 불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밝은사람들硏, 11월 19일 15회 연찬회

분노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나쁜 감정 기제일까, 아니면 ‘대분심(大憤心)’과 같이 깨달음과 목적을 위해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일 수 있을까. 분노를 불교적으로 해석 · 고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주제로 제15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는 분노에 대한 초기불교 · 선불교 · 사회학 · 심리학 · 서양의학 · 한의학 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논의한다.

초기불교 부문에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붓다의 분노’를 주제로 참여하며, 선불교 부문에서는 김호귀 동국대 교수가 ‘선종에서 분노의 대응원리와 활용’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사회학 부문에서는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분노의 사회적 원천과 파장’을, 심리학 부문에서는 권석만 서울대 교수가 ‘분노의 경험과 표현’을, 서양의학 부문에서는 김광기 동국대 교수가 ‘뇌과학적 견지에서 보는 분노’를, 한의학 부문에서는 구병수 동국대 교수가 ‘감정과 기에서 본 분노’를 각각 논한다. 연찬회는 관심 있는 사람이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교재인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11월 초 발매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봉 (사)범불교조계종 창종 수계 대법회 및 종도 모집 축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등록번호 : 191321-0001925

불기 2560(2016)년 10월 29일 (음, 9월 29일) 토요일

총본산 : 금오산 해인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577번지 / 055-351-3689)

총무원장 **범성 대명** 010-3193-3689

종도 모집 안내

❶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전법사 등록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 1부
- 법당사진(내, 외) – 1부 / 사찰 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 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반 명함판 사진 4매
- 계좌번호 : 농협 351-0902-3064-63 / (사)범불교조계종

❷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전법사,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사)범불교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 관리 감독은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일체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범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범성 대명